



## 누가 나를 남자라고 불러! 유니섹스 열풍

박진숙

### 1. 들어가며 : 유니섹스 경향

90년 대 초반부터인가, 80년 대 말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유니섹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패션계에서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더 이상 남자 옷 여자 옷 가리지 않고, 똑같은 디자인을 사이즈만 달리 해서 남녀가 같이 입는 '간편한' 문화가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티셔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가족 중에 몸집이 유달리 큰 사람만 없다면, 아빠부터 갓 대학 들어간 막내딸까지 두루 두루 '돌려 입을' 수도 있어 아주 경제적인 품목이다. 또한, 신혼 부부들이 여행을 가면서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커플룩'도 알고 보면, 유니섹스의 경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점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데에 '관대'해진 것 같다. 긴 머리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남성을 상징하는 군화도 이제는 여성들이 독특한 패션을 연출할 때 신는 품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아직도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분류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석기 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현대 문화는 어느 정도 유니섹스의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군화 스타일의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아니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다음에 이야기할 여자 같은 남자는 문제가 다르다.

### 2. 여자보다 예쁜 '여자' 하리수 : 정신과 육체의 불일치, 트랜스젠더

얼마 전 일간스포츠에 하리수(본명 이수, 22세)라는 '여자'가 수영복을 입은 야한 사진이 1면에 실렸다. 스포츠 신문은 으레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들의 사진을 전면에 올 칼라로 실어서 사람들을 자극하기 마련이므로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모르나, 그 '여자'의 사진은 유난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리수는 선천적인 여자가 아니라 후천적인 여자(적어도 신체상으로는)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인 것이다.

트랜스젠더란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랍들을 가리킨다.”(net4ts.pe.kr에서 인용)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들이 흔히 동성애자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하거나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을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다른 것이다. 또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반드시 성전환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과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하리수처럼 가수로 데뷔하고, 영화도 찍는 등,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한 ‘타인’이요, ‘제 3의 인간’이다. 아무리 신체상으로는 분명히 여자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직 남자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역시 여전히 ‘1’로 시작한다. 얼마 전 성전환자가 호적정정(남자에서 여자)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 장벽을 실감케 한다. 이보다 더한 예는, 몇 년 전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그 남자를 ‘강간범’으로 고소했었는데, 이 사건을 ‘강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심하던 법정은, 피해자를 남성으로 보고 강간죄를 묻지 않았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대상은 여성에 한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였다) 이 관례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생물학적인성과 사회적인 성, 성기의 모양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결국에가서는 ‘염색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법적으로 용인하지않고 있을 뿐더러,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곱지 않다. 하리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이제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어서 좋겠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 3.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의 입장?

성경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남색하는 자(남성동성애자)나 역리(易理)로 쓰는 여인(여성동성애자)에 대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로마서 1: 26~30)라고 말할 뿐이다. ‘역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트랜스젠더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따로 만드시고, 그에 맞는 성정체성을 주신 후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이치’에 어긋난다. 육체는 분명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는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는(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트랜스젠더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타락의 결과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리수처럼 “한 번도 자신을 여자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 역시 소경이나 앓은뱅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한 선천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장애인들에 대해 긍휼을 품어야 하듯이, 날 때부터 트랜스젠더로 태어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 하리수도, 자신을 단순히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몰이해에 대해, “오죽 했으면 성전환을 했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이런 사람들은 색다른 성적 만족이나 모험을 위해 동성을 정상대로 택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남성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성애자이고, 여성을 사랑하면 동성애자가 되므로, 일반 이성애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유니섹스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 역시, 모든 극단을 부정하고, 융합이나 혼용을 선호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남장 여장(드랙 킹Drag King)이나 여장 남자(드랙 퀸Drag Queen)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나 장난일 수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성을 전환하는 사람은 없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본인에게는 그것이 '실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들은 삶을 비판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동성애에 빠지기 쉽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서, 그들이 정신적인 성과 신체적인 성의 일치를 이루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